

# 중국의 미투 운동: 글로벌 ‘접속’과 토착적 ‘수용’\*

김미란\*\*

## 목차

1. 글로벌 맥락과 중국 미투 운동
2. 중국 미투의 발생과 전개
  - 2.1. 해외 화인 네티워-교육계를 향한 폭탄
  - 2.2. 도덕적 책임 vs 법적 처벌
3. 미투는 중국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가?
  - 3.1. ‘연애’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베이징 노동자의 집’ 성 침해사건
  - 3.2. 압박의 성공-국제기금 옥스팜과 내부의 지지
  - 3.3. 중국의 여성주의 지식생산과 미투
4. 다시 ‘중국적 현실로 돌아와서

## 〈국문초록〉

중국에서 미투는 2018년 초부터 ‘지진’처럼 중국사회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신속한 ‘Me Too’검색어 차단으로 미투발생 이후의 전개상황은 검색이 불가능해져 본 연구는 우회적으로 ‘성적 침해’, ‘성적 괴롭힘’, ‘교사의 직업의식’, ‘공익’이라는 네 키워드를 통하여 글로벌 미투 운동과 중국사회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중국 미투는 익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계’와 ‘공익’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해결은 위로부터의 강력한 징계(해고)형식을 띠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80743)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교수 & 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교수

가해자는 범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는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발 미투에 앞서 중국에서는 2014년 사면대학 성침해 고발 사건을 계기로 ‘성 침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하였고 여성계에는 ‘남녀평등권’과 ‘성적 자유’를 지지하는 상층이지만 ‘발전된’ 입장들이 표명되었다. 이 중국판 미투를 계기로 정책과 학문영역에 새로운 움직임이 가시화되어 법학계에서는 기존의 성증립적이고 행정처리중심인 ‘기율심사’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국식 소송을 통한 처벌을 차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미투는 무엇보다 2000년대 이후 시행된 국가발전전략과 밀접한 관련 하에 이해되어야 한다. 수많은 가해자 가운데 ‘선별적’으로 처벌대상이 된 교육계인사들은 공통적으로 ‘장강학자’ 신분으로, 이들은 중국 정부에 의해 막대한 연구 기금 혜택을 누린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인권침해’가 아닌 ‘교사로서의 직업의식’ 결여라는 이유로 처벌되었으며 그 결과 인권침해와 성인지 감수성의 보편적 발전은 어려웠다.

국문핵심어 : 성적 괴롭힘, 교육계, 공익, 평등권, 성적 자유, 국가발전전략, 미투

## 1. 글로벌 맥락과 중국 미투 운동

뉴욕타임즈는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운동(#Me Too)에 대하여 운동이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난 2017년 12월 30일에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미투운동(이하 ‘미투’)은 ‘완벽한 폭풍이자 일순간에 문화적인 각성을 촉발시킨(perfect storm and a cultural awakening)’ 사건으로<sup>1)</sup> 이를 계기로 이제까지 고질적으로 만연된 직장내 성희롱과 폭행이 둘만

1) “The #MeToo Moment: The Year in Gender”,  
<https://www.nytimes.com/2017/12/30/us/the-metoo-moment-the-year-in-gender.html>

이 알 수 있는 모호한 “회색 지대(gray zone)”로 남아있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페미니스트들이 글로벌한 소셜매체를 통해 회색지대 안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을 논의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지대는 공권력이 미치는 영역으로 바뀌었으며<sup>2)</sup> 기사는 현역 체조선수를 6세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해 온 주치의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예로 들면서 ‘정의는 비록 더디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미투가 보여주었다고 평하였다.<sup>3)</sup>

미투는 ‘나도 고발한다’는 뜻으로 피해자간의 연대의지를 확인하는 운동이다. 한국사회에서 실명을 드러내고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을 고발한 사건 가운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은 재판부가 피고의 ‘성인지 감수성’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sup>4)</sup>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전환적 사유를 법정에서 채택함으로써 그 이전까지 사적인 ‘남녀관계’로 인식되던 은밀하고 모호한 영역이 ‘권력’과 ‘젠더’ 두 요소의 결합지점으로 인식되었으며 그 결과 ‘회색지대’는 성도덕이 아닌 ‘법적 심판’의 영역으로 변화되었다.

그렇다면 ‘회색지대’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을 문제삼는 인식상의 전환은 미투가 일어난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는가? 그렇지는 않다. 중국의 전개 상황은 미투가 각국의 상황과 사회문화적 조건에 의해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미투는 2018년 년 초부터 마치 ‘지진’처럼 중국사회를 뒤흔들었다.<sup>5)</sup> 그러나 정부의 신속한 ‘Me Too’검색어 차단과 해당 SNS 계정폐

2) “The #MeToo Moment: Navigating Sex in the ‘Gray Zone’”  
<https://www.nytimes.com/2018/02/23/us/the-metoo-moment-navigating-sex-in-the-gray-zone.html>

3) “The #MeToo Moment: For U.S. Gymnasts, Why Did Justice Take So Long?”  
<https://www.nytimes.com/2018/01/25/us/the-metoo-moment-for-us-gymnasts-olympics-nassar-justice.html>

4) SBS취재파일, 「안희정 2심 판결문 입수..’학습된 무기력’」, 2019.2.3.  
<https://news.v.daum.net/v/20190203162701929?fbclid=IwAR1vfUosFKIYoxZiLQxi6QOLh8zQ7IUSCcrkknzNQ-hx3VUo61vQCPaypxo>

5) 산시(陝西)성에서 30여년 간 여성운동과 연구를 이끌어 온 가오샤오셴(高小賢)의

왜로 인해<sup>6)</sup> 2019년 현재, 미투발생 이후의 전개상황은 검색이 불가능하다. 중국 미투운동의 플랫폼인 개방형 소셜매체인 웨이보(微博, 중국식 페이스북)가 통제되어 미투운동의 확산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미투는 영화계를 필두로 ‘배운’ 백인 여성이 주도하고 여성 ‘명사’들의 공개적 지지를 받으며 확산되었으며 참여자는 모두 실명으로 고발에 동참하였다. 실명공개는 수치와 자책의 ‘피해자다움’을 당연시하던 인식을 깨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당당하게’ 추궁함으로써 익명의 고발자일 경우 가해자가 도피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sup>7)</sup> 그러나 중국내의 미투 고발자들은 실명공개를 꺼린 익명이었으며 대중들이 거리로 나가 ‘미투’를 외치지도 않았고 미투를 공개지지하는 여성 ‘명사’ 또한 한 명도 없었다. 다만 가해 남성들이 ‘명사’ 급이라는 것만이 여타 국가와 유사하였다.

익명성과 함께 중국 미투의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징은 미투가 교육계와 NGO와 같은 비영리 공익단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는 영화계에서 시작되어 문화계 전반과 정계로 확장되었고 한국의 경우 법조계, 정계, 문화계, 영화계, 교육계가 망라됨으로써 일상의 영역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자각이 확산되고 있다.<sup>8)</sup> 한편, 일본에서는 정계나 연예계에서 전혀 반향이 없고 힘이 약한 프리랜서가 중심이 되어 산발적으로 미투가 전개되었다.<sup>9)</sup> 미투가 확산되지 못

발언. 王婷, 「關於公益圈性騷擾, 她們有話說!」, 陝西婦女研究會, 2018.7.30.

<http://www.chinadevelopmentbrief.org.cn/news-21695.html>

6) 검열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에서는 ‘me too’를 중국어로 번역한 ‘我也是(나도)’, 혹은 미투를 음역하여 ‘米冤運動(쌀도끼 운동, 쌀도끼는 미투의 음역어)’을 사용하기도 한다.

7) 중국에 보도된 한국의 미투 가운데 오달수의 사례가 그러하다. 20대 때 성폭행한 일을 고발당한 특급조연배우인 오달수는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배우 엄지영이 실명으로 폭로하자 성폭행(성적 침해) 사실을 인정하였다. 「爆“性騷擾”的這個男演員,時隔一月之後發聲:我真的很痛苦」, 2018.4.1.

[http://www.sohu.com/a/226933577\\_164689](http://www.sohu.com/a/226933577_164689)

8) 「20만 명 동의 국민청원 40%가 ‘젠더 이슈’」, 세계일보, 2019.7.18.

<https://news.v.daum.net/v/20190718060157145>

한 원인에 대하여 조경희는 1990년대에 경기침체로 인해 공고해진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일본에서는 젠더 백래시가 이미 90년대에 역사수정주의와 헌법개헌 등 정치적 백래시와 함께 진행되었고 거대해진 보수연합의 물결은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우익세력이 주축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위축되기 시작한 일본의 페미니스트들은 전문성을 이유로 분리되어 위안부 문제와 격리된 채 우익에 대한 공동의 대항 담론을 형성하는 데 실패하였고 그 결과 일본의 #MeToo운동은 우익 애국주의와 대중의 '페미니즘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 가시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었다.<sup>10)</sup>

한편, 중국에서는 '교육'과 '공익(NGO)'영역에서 미투가 주로 발생하였고 중국정부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신속하고도 강력한 도덕적 질책과 처벌(해고)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미투는 이처럼 각국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에서 미투가 개인의 권리침해를 둘러싼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법적 다툼이 아닌 위로부터의 도덕적 책임을 묻는 징계 형식으로 처리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미투는 중국사회와 여성주의 진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내 미투의 전개양상과 그 해결방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투가 발발하기 전부터 중국사회에 존재해 온 '성에 기반한 폭력'(성적 괴롭힘과 성폭력, gender based violence까지를 포괄한)과 국외에서 유입된 미투는 어떻게 접속되었으며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미투운동이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9) 眞殿仁美, 「中國のセクシュアル・ハラスメント問題への対応と「#Me Too」運動の影響」, 『城西現代政策研究』, 第12卷 1號, 城西大學, p.40.  
 10) 조경희, 「일본의 미투, 고립과 교차성 사이」, 『페미니즘 지식문화의 동아시아적 유동과 변환』, 한국여성문학학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HK+) 연구소 공동 학술회의 자료집(2019년 5월 11일)

## 2. 중국 미투의 발생과 전개

### 2.1. 해외 화인 네트워크-‘교육계를 향한 폭탄’

중국의 미투운동은 중국정부의 소셜메신저 통제로 인해 우회적 방식을 통해야만 분석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여 ‘성적 침해(性侵)’ ‘성적 괴롭힘(性騷擾)’ ‘스승으로서의 직업의식(師德)’ ‘공익(公益)<sup>11)</sup> 네 검색어를 통해 우회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분석대상은 기사 보도와 평론, 성명서 등 1차 문건으로 하였다. 활자화된 자료로 파악되기 어려운 최근의 상황변화는 관련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충하였다.

검색어로 택한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에 상응하는 중국어는 ‘성 소요(性騷擾)’이다. 본래 ‘소요’는 ‘타인을 괴롭혀 불안하게 하다, 소동을 일으켜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뜻으로 전화 괴롭힘, 문자 괴롭힘, 성적 괴롭힘과 같이 사용되며 이중 ‘성 소요’는 주로 직장이나 노동과정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1970년대 말 맥키넨(Catharine A. Mackinnon)<sup>12)</sup>이 처음 사용한 것을 중국어로 번역한 ‘수입품’<sup>13)</sup>이다. 또 하나의 검색어인 ‘성적 침해(性侵)’는 ‘성적인 측면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뜻으로 성 소요와 달리 주로 미성년, 지적 장애인,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사용되며 특히 ‘학교 성 침해’라는

11) 중국에서 ‘공익’은 비영리 시민운동을 지칭하나 한국이나 여타 국가의 NGO와 달리 중국의 공익단체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통상적으로 기금회의 지원을 받아 ‘공익’단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공익자선’을 병행하여 쓰는 데서 나타내듯이 자선활동과 공익활동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 글에서는 비정부조직이란 의미로 ‘공익’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12) 맥키넨은 『직장여성의 성적 괴롭힘(職業女性性騷擾)』을 써서 최초로 여성의 sexual harassment를 개념화하였다. 리옌(李妍), 『직장의 성적 괴롭힘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연구(職場性騷擾雇主責任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年 6月, p.34.

13) 李妍, 『職場性騷擾雇主責任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年 6月, p.33.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학교는 미성년 연령층이 학습하고 있는 초중등 학교를 지칭한다. 성적 침해는 성폭력을 포함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형사 처벌의 대상인 강간까지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sup>14)</sup> 이 글에서는 사안이 엄중한 미투 사례를 다루는 만큼 '성적 침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중국내에 미국발 영화계의 미투운동의 전개양상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한 것은 『중국청년보』의 2017년 11월 1일 기사이다.<sup>15)</sup> 그 후 타이완의 미투(연예, 모델에 대한 성적 괴롭힘)<sup>16)</sup>와 한국의 미투(영화계의 조민기, 조재현, 오달수의 성폭력 보도<sup>17)</sup>)가 잇따라 보도되었는데<sup>18)</sup> 실제로 중국의 미투를 촉발시킨 계기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여성 뤼첸첸(羅茜茜)의 피해 폭로였다.<sup>19)</sup>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뤼첸첸은

14)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中華人民共和國刑法』)의 제236조는 폭력과 위협이나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명시하고 있다.

15) 「我也是」, <http://news.163.com/17/1101/05/D24QNB4R00018AOP.html>

16) 타이완의 연예인이 1년 동안 제3자가 없을 때 자신을 더듬고 만진 제작자의 성적 괴롭힘을 고발한 사건, 「24歲女星曝遭制作人性騷擾1年:无人就摸我」, 2016.11.3. <http://ent.sina.com.cn/s/h/2016-11-03/doc-ifxxnety7159381.shtml>.

한 남성이 타이완의 유명모델에게 자신의 아랫도리 사진을 보낸 사건, 당사자인 모델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야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와 함께 사건을 폭로하자 대중들이 지지하였다. 「台女星遭性騷擾主動出擊:對方傳下体照」, 2014.10.29.

<http://ent.sina.com.cn/s/h/2014-10-29/00224231712.shtml>.

타이완의 여성학자인 덩나이페이(丁乃非)에 따르면 타이완에서의 미투운동은 그다지 반향이 폭발적이지 않았다고 한다.(2019년 5월 6일 대담, 서울)

17) 「被爆“性騷擾”的這個男演員, 時隔一月之后發聲:我真的很痛苦」, 2018.4.1.

[http://www.sohu.com/a/226933577\\_164689](http://www.sohu.com/a/226933577_164689)

18) 한국 연예계 미투에 대한 보도는 「“Me too”反性騷擾延至韓國 演藝圈大規模遭指控」, 2018.2.24.

[http://ent.ifeng.com/a/20180224/43030609\\_0.shtml](http://ent.ifeng.com/a/20180224/43030609_0.shtml)

19) “China’s #MeToo Activists Have Transformed a Generation – A small group of feminists has shifted attitudes—and prompted harsh pushback”, By Simina Mistreanu, January 10, 2019, <https://foreignpolicy.com/2019/01/10/chinas-metoo-activists-have-transformed-a-generation/>

매일 아침 Fox뉴스의 미투 보도를 보며 묻어두고 있던 18년 전의 치욕스런 기억을 떠올렸다. 베이징 항공우주비행대학(北京航空航天大學, 이하 ‘베이징항공대학’) 재학시절, 자신의 박사지도교수인 천샤오우(陳小武)<sup>20)</sup>로부터 아파트에서 강간을 당하려던 당혹스런 순간에 ‘저는 처녀예요!’라는 외마디를 지르고 가까스로 상황을 벗어났던 기억. 사건발생 후 줄곧 침묵해 온 그녀는 미투 뉴스를 보며 “나의 침묵이 다른 여자들을 희생자로 만들었는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더 늦기 전에 나서야겠다고 결심하고 천샤오우에게 성적 침해를 당한 다른 생존자들을 모아 ‘하드 캔디(Hard Candy)’<sup>21)</sup>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자신 외에 6명의 성적 괴롭힘을 당한 여학생들로부터 증거를 수집한 워첸첸은 자료를 2017년 10월 베이징항공대학으로 보내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대학측은 조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목살하였다. 한 달 뒤인 11월, 그녀는 중국의 광조우에서 비영리 공익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던 황쉐친(黃雪琴)<sup>22)</sup>이 웨이보를 통해 중국내 여기자에 대한 성적 괴롭힘을 설문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의 고발내용을 2018년 1월 1일 황쉐친의 웨이보에 녹음파일로 올렸다. 이 파일 업로드에 호응하여 황쉐친은 워첸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로 올렸고 이 계정은 이틀 만에 3,000명의 지지자를 확보하는 놀라운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워첸첸이 포스팅을 한 지 2주 만에 베이징항공대학은 교수 천샤오우를 전격 해고하였다. 그리고 몹시 예외적인 경우로, 중국의 교육부가 직접 선언문을 통해 사건수습에 나섰는데 교육부는 ‘교수의 성적인 불미스런 행위에 대하여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캠퍼스 안에서의 성적 침해와 싸울 것’이라고 천명하였다.<sup>23)</sup>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성적 침

20) 전 베이징 항공우주비행대학교수(北京航空航天大學教授), 박사지도교수, 1972년생, 長江學者.

21) 미국내에서 성폭력에 반대하기 위해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졌던 모임의 명칭.

22) 황쉐친에 대한 정보는 「性騷擾調查發起者黃雪琴：如果我們繼續沉默，就是帮凶」, 2018.1.16. [http://www.sohu.com/a/217012054\\_99937407](http://www.sohu.com/a/217012054_99937407) 참조

23) 「近年高校教師猥褻性侵女大學生案例大盤點」, 2018.4.9.



해사건에 대한 교육부의 이러한 대응방식은 예상외의 강력하고도 신속한 것이었는데, 놀라운 점은 이런 '신속하고도 강력한' 대응을 정부가 대형 성 침해사건에 대하여 일관되게 적용하였다는 사실이다.

베이징항공대학 사건은 중국내 미투를 촉발시킨 최초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에서 볼 때 중국미투의 정점은 전(前) 베이징대학 중문과 교수였던 선양(沈陽)의 성폭력 사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선양은 폭로될 당시 난징(南京)대학 중문과 주임교수이자 박사지도교수였으며 베이징대학 중문과 교수를 역임한 중국 언어학의 대가로, 베이징대학 재직 당시인 2011년에 중국 학술계 최고의 영예인 “장강학자 특별초빙교수(長江學者特聘教授)”라는 국가급 명사로 선정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 여학생이 자살하였다는 점 역시 이 사건의 충격성을 더한 측면이 있다.

선양사건은 한국내에도 보도된 사건으로<sup>24)</sup>, 리요우요우가 2018년 4월 5일 웨이보에 포스팅한 이후 중국에서 미투는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sup>25)</sup> 그러나 이 미투고발건이 미디어에 보도된 기간은 고작 2018년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5일 동안이었으며 이 닷새 동안에 일어난 사건 일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4월 5일: 베이징대학 졸업생 리요우요우(李悠悠)가 실명으로 20년 전에 자살한 친구 가오옌(高岩)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선양에게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라고 한 글 「베이징대학 리요우요우 실명으로 장강학자 선양교수를 고발함(北京大學李悠悠實名揭發長江學者沈陽教授)」을 소셜미디어인 도우반(豆瓣)에 올림

[https://www.sohu.com/a/227732428\\_100130164](https://www.sohu.com/a/227732428_100130164)

24) 「20년 전 지도교수 강제성추행 여대생 자살…미투 베이징대 강타」 2018.04.07.

<https://news.joins.com/article/22516024>

25) 李悠悠, 「北京大學李悠悠實名揭發長江學者沈陽教授」, 2018.4.5.

<http://bbs1.netbig.com/thread-2863344-1-1.html>

4월 5일: 중국정부가 도우반에 올린 기사를 삭제하고 계정을 폐쇄
4월 6일: 베이징대학이 사과문 발표(北京大學教師職業道德和紀律委員會 명의로 발표된 「설명(說明)」)
4월 7일: 난징대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양을 해직시킴(「베이징대학동문 이 인터넷에 발표한 글에 대한 성명(關於北大校友網上發文的聲明)」 발표)
4월 7일: 상하이 사범대학교가 선양의 겸직교수 초빙계약 파기
4월 9일: 자살한 피해 여대생의 모친과의 인터뷰, 폭로자인 리오우요우에 대한 기자의 인터뷰가 보도되고 일간지에 평론성 문장이 실림. <sup>26)</sup>

2018년 4월 9일 이후로 선양사건에 대한 더 이상의 보도는 없었으며 이 미투고발은 5일 만에 선양의 교수직 박탈로 종결되었다. 리오우요우는 세 대학의 선양 전격 해임에 감사를 표하였으나 그녀가 궁극적으로 희망했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sup>27)</sup>에 대한 내용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천샤오우, 선양 이 두 인물에 대한 성폭력 고발 사건의 공통점은 재미 화인<sup>28)</sup> 여성이 실명으로 소셜미디어에 성적 침해를 폭로하였다는 데 있

26) 피해자의 모친인 조우수밍(周樹銘)은 『중국 뉴스주간(中國新聞周刊)』과의 인터뷰에서 멀리 캐나다에서 자신의 딸의 억울한 자살을 밝혀주기 위하여 공개적 폭로를 해 준 딸의 고교와 대학동창 리오우요우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선양에 대해서는 ‘리오우요우가 중국 법의 관할 영역밖에 머물면서 무책임하게 자신을 고발했다고 하는 몰염치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격하게 비난하였다. 「對話“沈陽事件”舉報人李悠悠：望公開當年處分當事人的會議記錄」, <https://ent.sina.cn/2018-04-08/detail-ifyteqtq5556661.d.html?pos=12&vt=4>

27) 리오우요우는 위 고발문에서 “이러한 피해자들이 학교의 보호하에 용감하게 나서기를 바란다. 우리는 난징대학이 선양에게 성적으로 침해를 당한 여학생들이 안심하고 그를 고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당장의 처리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28) ‘화인’이란 명칭은 국적이 아닌 ‘중국 문화’권에 속하는 인물을 지칭하는 광의의 중

다. 리요우요우의 고발은 앞선 뤼첸첸의 미투고발을 보고 자극을 받아 행해진 것으로 미국내의 미투처럼 실명공개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폭로에 대한 중국내에서의 대응방식은 뉴욕타임즈가 ‘일순간에 문화적인 각성을 촉발시킨 폭풍’이라고 정의한 것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가해자인 명사 남성에게 ‘완 스트라이크 아웃(一票否決)’<sup>29)</sup>을 가하는 ‘행정처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면 국가는 성적 침해를 가한 교수들을 어떤 근거로 징벌하였는가? 교육부는 이들이 “부적절한 행위로 스승으로서의 직업도덕을 위배하였다(行爲不當、違反師德)”<sup>30)</sup>고 설명하였는데, 만약 ‘사덕위반(違反師德)’을 핵심적인 문제라고 본다면 당연히 처벌의 목적은 ‘가해자가 스승이 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충족된다. 실제로 교육부는 가해자를 해직시킴으로써 사건을 종결시켰는데 이러한 처리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러한 처리방식이 20년 전에 딸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고 (리요우요우의 고발문의 내용처럼) 자살 직전에 성적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에게 합당한 해결방식이었는가라는 점이다. 폭로자인 리요우요우는 자신은 비록 기소권이 없지만 유가족이 선양을 고발함으로써 철저히 죄를 물어야한다고 주장하였는데<sup>31)</sup> 이러한 바람이 해고로 충족되어지는가?

현실은 이러했다. 해고당한 후에 선양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리요우요

국민을 뜻한다.

- 29) ‘완 스트라이크 아웃(일표 부결제)’는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계획생육)정책을 시행할 때 관료들에게 적용했던 징계방법이다. 여타의 성과가 아무리 우수해도 출산정책 목표 한 가지만 미달해도 승진에서 전격 탈락시키는 강력한 처벌제도이다.
- 30) ‘사덕’이란 教師道德의 줄임말로 교사의 직업적인 도덕의식을 의미한다. 「近年高校教師猥褻性侵女大學生案例大盤點」, 2018.4.9.  
<http://www.yfmp.net/funny/1967.html>
- 31) 리요우요우가 쓴 원문은 “目前, 我本人對沈陽教授尚無法律訴求。但我堅決捍衛過去和現在的受害者及其家人保留其法律訴求、追究沈陽罪責的神聖權利。”이며 원 출처와 제목은 「南京大學文學院語言學系主任、長江學者沈陽教授, 女生高岩的死亡的与你無關嗎?」, 2018.4.5. <https://www.douban.com/note/664259813/>.

우에게 중국 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에서 ‘무책임하게 소셜미디어로 사람을 모함하지 말고 대학측을 상대로 고소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해직처벌을 받아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 소송을 걸라는 선양의 태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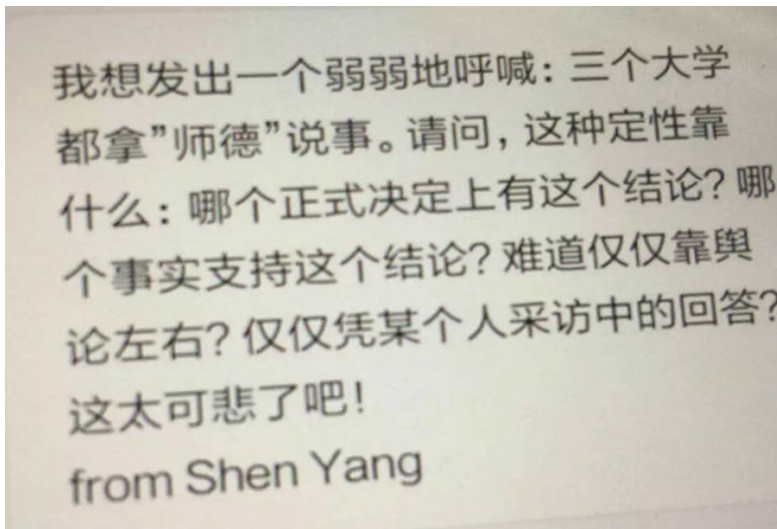


그림 2 세 곳의 대학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선양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떤 근거에 의해 자신을 처벌하였는가를 물으며 자신은 단지 여론과 인터뷰 몇 건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인터넷 캡처)

선양이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는 ‘증거가 없다’는 데 있다. 리요우요우의 증언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이 유죄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없는가? 성폭력사건의 기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의해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어야 하는데 선양은 중국의 재판부가 무엇을 증거로 인정하고 혹은 인정하지 않는가를 경험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사료된다. 법이 ‘증언’의 증거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적 상황에서 피해자가 20년 전에 세상을 뜨고 증언 만

이 남아있는 베이징대학 미투사건이 재판을 통해 해결되는 것은 요원하다. 따라서 피해자 가족과 고발자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당내 기율조사를 통한 작금의 하향식 '처리'방식은 일상생활을 포괄한 전 영역에서 대중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보다는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문제삼아 그것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즉, 미투가 '문화적 각성'을 수반하여 대중적 확산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이다.

중국 내에 아동 및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가인 중국사회과학원의 부웨이(卜衛)는 '폭력'에 대한 개념규정의 변천사를 상기시키며 성에 기반한 폭력의 핵심은 '인권 침해'라는 점을 강조한다.<sup>32)</sup> 그는 유엔이 1992년에 최초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차별에 기반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1993년에 다시 '신체와 정신에 대한 폭력 외에 성적인 상해와 위협, 즉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재규정하였으며 2003년 방콕 회의에서 비로소 '젠더에 기반한 폭력(Gender Based Violence)'이란 용어를 채택함으로써 젠더폭력이 '인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침해'로 정의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즉 '성'폭력은 단지 생물학적 성기준이 아닌 '젠더 폭력'이라는 넓은 범주로 확장되어야 하며 그것이 '인권'을 침해한 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sup>33)</sup>

부웨이의 입장을 수용한다면 피해자는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고 법적 처벌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왜 중국정부는 성적 침해가 '인권'침해가 아닌 '교사로서의 직업도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는가? 다음 절에서는 중국에서 일어난 성적 침해에 대한 폭로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가를 살펴보고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처리방식이 남긴 쟁점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 2.2. 도덕적 책임 vs 법적 처벌

32) 卜衛·劉曉紅 等, 「校園性別暴力的媒介再現研究」, 『婦女研究論叢』, 2019年 第1期

33) 卜衛·劉曉紅, 위의 글, p.79.

2018년 한 해는 벽두부터 현직 교수들에 대한 성적 침해 보도가 줄이은 해였다. 통계학 교수 쉘위안(薛遠)의 장기간에 걸친 여학생 성 침해가 보도되었고<sup>34)</sup> 이에 앞서 샤먼대학에서 박사과정 여학생들을 유인하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역사학과 교수 우춘밍(吳春明)사건이 전 사회에 충격을 안겨 준 바 있다. 폭로 당시 당황한 샤먼대학측은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이러한 폭로의 대상이 된 교수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해외유학을 한 정보과학이나 첨단산업분야의 80후(1980년대생) 세대이거나 학술적으로 명성이 있는 중년 남성들이라는 점이었다.

미국으로부터 촉발된 미투운동이 중국에서 발생하기 전인 2014년 6월 14일에 교육계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다. 푸젠(福建)성의 샤먼(廈門)대학에서 덩양(汀洋, 가명)이라는 박사과정 여학생이 “고고학과 여학생을 위한 ‘짐승’예방 필독사항(考古女學生防“獸”必讀)”<sup>35)</sup>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사건인데, 교육계를 들끓게 한 게시 글을 요약하면 “1. 고고학과 여학생은 야외로 장기간 고고학 발굴을 떠날 때 절대로 음란한 짐승인 교수와 둘이 외출하지 말 것. 2. 음란한 짐승은 유순한 지방 출신 여학생을 골라 질책과 칭찬을 반복하며 길을 들인 뒤 해당 학생이 부모와 관계가 소원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대담한 행동에 착수한다. 3. 교수의 추천이 필요한 논문과 진학은 여학생의 급소이다. 회유와 협박에 성공한 교수는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챙기자’며 성적 침해를 당연시한다.

‘필독사항’이 공개되자 재학생 76명은 연대서명을 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였고 학교측은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처음에는 해당 교수의 박사생 지도권한만 박탈하였다가 결국 3개월

34) 미국 조지아대학에서 2012년 통계학 박사학위 취득한 인물, 유관 내용은 「如何看待針對對外經貿大學統計學院薛原教師實施猥褻及長期性騷擾的舉報」, 2018.1.13.

<https://www.jianshu.com/p/771d2c6a3e41>

35) 덩양이 올린 글은 汀洋, 「「考古女學生防“獸”必讀」全文」

<http://www.mnw.cn/xiamen/news/773154.html>.

만에 우춘밍(吳春明)의 교수직을 박탈하였다. 대학은 “스승으로서의 직업도덕과 품위(師德師風) 문제에 대해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며 발견되면 단호하게 조사하여 처리할 것이다”라는 교육부의 징계 문구를 반복하며 그를 징계하였고<sup>36)</sup> 2018년 현재, 해직된 우춘밍은 일터를 바꾸어 샤먼대학의 도서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상의 사건처리 과정이 보여주는 것은 중국의 경우 해외의 미투운동이 전파되기 이전과 이후에 동일하게 ‘스승으로서의 직업도덕’결여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징계하였다는 사실이다. 덩양 사례와 같이 교수와 학생 간의 권력 불평등이라는 구조하에서 발생하는 학내 성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는 다음과 같다. ‘박사지도교수는 속으로 학생이 졸업을 늦추면서 힘든 일을 대신해주기를 바라지만 학생들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로가 없다. 관련분야에서 학술위원회 제도를 만들어 한쪽 의견만 관철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발언할 권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피해자들이 일회적 처벌이 아닌 제도화를 통한 권력불균형의 해소를 희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사제간의 권력불균형은 여학생의 성만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가? 고교시절, 국제 물리올림피아드에 출전하기 위하여 교사의 성추행을 견뎌왔던 한 남성의 폭로는 남성의 성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성추행을 당하고 15년이 흐른 뒤 TV방송을 통해 얼굴과 실명을 드러내고 피해사실을 밝힌 이 남성은 올림피아드에 출전하기 위해서 역대로 수상자를 배출하여 신화적 존재로 떠받들어지던 물리학 교사의 추행을 목인하였으며 그럼에도 결국 자신은 출전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sup>37)</sup> 폭

36) 「厦大博導誘奸女生事件」,

<https://baike.baidu.com/item/%E5%8E%A6%E5%A4%A7%E5%8D%9A%E5%AF%BC%E8%AF%B1%E5%A5%B8%E5%A5%B3%E7%94%9F%E4%BA%8B%E4%BB%B6/15099756?fr=aladdin>

37) 「上海名師性侵多名男學生 曾是學生口中的“傳奇」, 2013.12.29.

<https://www.nanrenwo.net/zlht/43352.html>

로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그는 자신이 부모가 된 지금 초등학교생인 아들이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였다.

‘성’폭력으로부터 ‘젠더’폭력으로 확장된 성적 침해 개념에는 동성이나 이성, 간성인(인터섹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포함되며 부웨이(卜衛)는 젠더폭력이라는 입장에서 교육계의 폭력을 비판한다. 그는 중국의 학교폭력 가운데 젠더폭력이 44%를 차지한다고 분석한 뒤 가해자는 피해대상을 고를 때 ‘주로 지켜 줄 부모가 곁에 없는 여아를 선택하며 피해자가운데 70%가 부모가 도시로 일하러 간 농민공의 딸’이라고 지적한다.<sup>38)</sup> 가해자가 ‘저항할 힘이 없는 대상을 물색한다’는 연구자의 설명은 성폭력이 권력불균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해 준다 하겠다.

이런 권력의 비대칭을 고려하여 변호사 조우레이(周雷)는 성폭력 피해자를 정의하는 조건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강간죄가 구성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만드시 폭력, 협박 혹은 기타수단으로 여성이 감히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간음을 행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문제라고 보고 “만약 지도교수가 논문통과를 조건으로 학생을 협박하거나 졸업 여부를 가지고 으박지르면서 성적 침해를 가하면 여성의 의지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강간 혐의를 받는다.”라고 주장한다.<sup>39)</sup> ‘저항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인 것이다.

교사나 교수는 지적 자원이나 네트워크 등의 측면에서 학생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 특히 학생에 대해 무시함으로 대학원이나 취업에 추천하는 교수의 권한(保研, 保送)을 허용하는 중국적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타인의 인정에 의해 명망으로 유지되는 시민운동단체(NGO)에서 성폭력은 왜 빈번하게 발생한 것인가?

2018년 7월에 발생한 인권운동가 레이창(雷闖)의 성폭행 폭로는 비영리 시민운동계에 대한 중국사회의 절대적인 신뢰를 흔들어 놓은 전환점

38) 卜衛·劉曉紅, 앞의 글.

39) 「評論：當女研究生遇上“以權謀色”的導師」, 2014.8.1.,

<http://tieba.baidu.com/p/3200558222>



이 된 사건이었다.<sup>40)</sup> 1980년대 이후로 중국에서는 B형 간염감염자가 에이즈와 유사한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되었는데,<sup>41)</sup> 저장(浙江)대학을 졸업한 레이황은 1억 명에 달하는 이 B형 감염자들을 위하여 '일억 친구 공익(亿友公益)'이라는 단체를 설립한 인물이다. 그는 고생스런 도보행진 등을 통해 모금한 돈으로 B형 간염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해 왔으며<sup>42)</sup> 2009년에 『검찰일보(檢察日報)』에 의해 올 해의 '정의로운 인물(正義人物)'로 선정된 유명 인사이다.<sup>43)</sup>

2018년 7월, 익명의 한 여성자원봉사자는 3년 전, 단체합숙방에서 레이황이 미리 준비해 온 콘돔을 꺼내 자신을 성폭행하였으며 레이황의 성폭행은 자신외에 여러 명에게 가해졌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에 언론은 '그와 애인사이가 아니었는가? 왜 당시에 하지 않고 3년이 지나서야 폭로하는가'라고 추궁하자 피해여성은 레이황이 세상 사람이 다 인정하는 '의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감히 사실을 발설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으나 성폭행 사례가 자신 외에도 여럿이라는 것을 확인 한 뒤 폭로를 결심했다고 하였다.

초기에 애인관계였다고 우기던 유부남 레이황은 곧바로 자신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하였음을 전격 시인하고 공익단체에서 즉각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공표하였다. 이 사건에 이어 7월 23일 환경보호공익단체의 여성자원봉사자인 류빈(劉斌, 가명)이 중국 최대의 녹색환경보호운동 조직인 '자연대학(自然大學)'의 대표인 평용평(馮永鋒)<sup>44)</sup>의 성폭행을 폭로하였다. 평용평이 여성 자원봉사자와 여직원들에게 소소하게 직급을 올려

40) 「雷闖性侵事件當事女生：不是“戀人”，他拿出安全套時覺得完蛋了」, 2018.7.25.

<https://baijiahao.baidu.com/s?id=1606930429312152733&wfr=spider&for=pc>

41) 이들은 병의 전염적 특성과 치료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체검사에 불합격하여 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차별받는 대상이 되었다

42) 「知名公益人雷闖承認“性侵”指控并致歉，但背后的言論却不堪入目」, 2018.7.25.

<https://baijiahao.baidu.com/s?id=1606947116342037379&wfr=spider&for=pc>

43) 「雷闖」, <http://www.baike.com/wiki/%E9%9B%B7%E9%97%AF>

44) 베이징대학 중문과를 졸업한 후 진보성향의 '남방일보' 기사를 역임한 환경보호운동가로 2007년에 '자연대학(自然大學)'을 설립하여 이끌어 왔다.

주는 것 등을 미끼로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며 저항하는 여성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평용평은 즉각 ‘자신이 너무나 사악’하게 욕심을 채워 왔었다고 반성하며 성폭행 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즉각 단체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였다.<sup>45)</sup>

이러한 일련의 폭로와 공익활동가의 신속한 인정, 직책포기 식의 사건 처리방식에 대하여 NGO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산시성(陝西省)의 부녀연합(婦女聯合, 이하 ‘부련’)은 자성과 함께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sup>46)</sup> 산시성 부녀연구회는 가해자들이 성폭행을 인정하고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전문적인 법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 가운데 눈을 끄는 것이 중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띠는 공익단체에서 성적 괴롭힘과 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를 중국사회의 시장화 개혁과 연관지어 설명한 양탄(楊團)의 견해이다. 양탄은 중국에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시장화 이후 오로지 돈만을 좇는 배금주의가 지배하고 있으며 이에 실망한 대중들은 공익영역을 ‘사회에서 오염되지 않은 마지막 청정지역(淨土)’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기대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그런 까닭에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어리고 순수한 사람일수록 대중문화의 아이돌을 숭배하듯 공익조직의 리더를 숭배하는 경향이 농후한데 현실 속의 공익활동가들은 그에 상응하는 높은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중국에서 공익단체는 제3섹터라 불리며 정부나 기업과 구분되기는 하나 실은 경계 자체가 불분명하고 관리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양탄은 공익단체는 다수의 비정식(非正式)조직과 소수의 정식(正式)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에게나 개방되기 때문에 공익단체가 사회 자체이며 마치 “강호(江湖)<sup>47)</sup>와도 같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공익분야에서 가장 먼저, 직

45) 「自然大學始創人被曝性侵女員工，馮永鋒：是我太邪惡」, 2018.7.25.

<https://baijiahao.baidu.com/s?id=1606926620897470376&wfr=spider&for=pc>

46) 王婷, 「關於公益圈性騷擾, 她們有話說!」, 陝西婦女研究會, 2018.7.30.

<http://www.chinadevelopmentbrief.org.cn/news-21695.html>. 이하 내용은 이 글.

47) 넓은 세상이란 뜻으로 ‘천하’와 같은 의미이다.

접적이고도 신속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단체라고 해서 특별한 사명감이나 도덕적 수준을 갖춰야 한다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되며 중국사회가 비록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사상적으로 남녀의 권리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통문화 속의 남존여비 습성이 여전히 잔존한다고 설명한다. 바로 그 전통문화 안에 '따꺼'(형님, 우두머리)를 추종하고 개인을 숭배하는 강호식의 건달문화가 고름처럼 박혀 있어 이번의 사태처럼 유명한 공익단체의 대표들이 '여자들을 소유' 하는 것을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성적 침해가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을 중국사회가 사상적으로 '현대화'하지 못하여 전통문화를 극복하지 못한 '사상적 지체'라고 설명하는 논리는 납득할 만한 것인가? '전통 vs 현대'라는 이분법적 틀에 입각한 양탄의 비판은 오랜 세월동안 축적되어 쉽게 변화하기 어려운 성 차별적 인식을 '문화'라는 측면에서 짚어 내었다는 점에 미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은 198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남존여비의 전통적 문화가 공존하게 된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미흡하다. 다시 말하면, 1980년을 전후로 하여 과거 30년 동안 마오쩌둥 사회주의시기에 건설된 성문화와 그 후 과거 마오시대를 비판하면서 시작된 40년 간의 시장주의 개혁시기에 재구축된 성 침해 현실을 '배금주의에 대한 비판'(순수한 가치에 대한 동경)과 전통적 '따꺼 문화'의 결합으로 설명하는 양탄의 분석은 개혁개방과 함께 왜 남성성이 부상하고 여성이 대상화되었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재미 여성학자 왕정(王政)은 1980년대 이후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당성의 확보가 '상실된 남성성'의 재구축이라는 젠더전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는 선행연구와 80년대의 담론 분석을 통해 문화대혁명의 종식(1976년)으로 인해 발언권을 회복한 지식인 남성들이 사회주의 시기 여성의 롤 모델이었던 '무쇠 처녀'(강인한 여성, 鐵姑娘)에 대하여 두려움과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런 여성상으로 인해 자신들의 남성성이 '거세'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였다고

고백하였음을 상기시킨다. 그 시대의 남성들은 ‘음이 성하면 양이 쇠약해진다(陰盛陽衰)’라는 신화와 ‘주변화되는 콤플렉스’를 내장한 채 마오쩌둥시대의 권위주의 정치에 대하여 저항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들은 농촌에서 남자들처럼 밭일과 육체노동을 하여 근육이 잔뜩 붙은 여성들을 ‘남성화’되었다고 폄하하고 이들이 마오주의시기에 중국인민들에게 강요된 극좌노선에 의한 성별평등의 희생물이라고 지목하였다. 그리고 마오시기의 강요된 여성해방으로 인해 “결국 중국 사회는 ‘진짜 남성’을 빼앗겨 버렸다. (...) 정치에 의해 추진된 여성해방은 또한 중국이 자신들의 여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1980년대 버전의 젠더관을 재구성하였다.<sup>48)</sup> 이러한 1980년대의 젠더담론은 ‘근본적인 정치적 분쟁의 순간에 젠더가 계급 재배치를 하는 과정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보여 준다.<sup>49)</sup>

한편, 시간을 거슬러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10대의 젊은 ‘무쇠처녀(iron girl)’들은 자신들이 여성에게 ‘금기’시 되어오던 밭일, 논일, 개간, 야간노동 등을 해냄으로써 배고픈 가족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고 그 호칭에 자부심을 느꼈었다.<sup>50)</sup> 이들은 결코 ‘고된 일’로 인해 ‘남성화’되어 여성적 매력이 없

48) Wang Zheng, *Finding Women in the State—a socialist feminist revolu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1964*, Oakland, California: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7, p.232.

49) 그 점에 있어서 당시 여성 ‘페미니스트’들도 일조하였다. 왕징은 ‘도시 엘리트 여성들이 시골이나 공장으로 보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여 그것이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의 여성성에 대한 억압이자 성차의 삭제라고 비난’하였는데, 이러한 ‘여성성’의 상실과 극좌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은 토착 페미니스트 1세대라 할 수 있는 리샤오강(李小江)의 당시 글쓰기에도 드러나 있다. 위 책에서 왕징이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은 ‘말 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지식인의 계급적 특성이다. 왕징은 오늘날 도시로 간 수천만 명의 농민공 남편을 대신하여 농촌에 남겨져 농사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농촌 여성들의 고된 육체적 삶이 실은 무쇠처녀와 마찬가지로 현실로서 존재하지만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지식인들은 아예 농촌여성들을 담론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는다고 지적한다. *ibid.*, p.231.

50) *ibid.*, p.236.

어져 부끄럽다거나 극좌주의정책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무쇠처녀'는 1960년대적 의미가 탈각되고 '진보'를 자칭하는 도시의 남,녀<sup>51)</sup>지식인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이분법-도시와 농촌, 성별,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적 프레임에 기반하여 '생물학적 특성'에 기반한 '자연스런' 여성미와 가정성(의 복원)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계급재편과 젠더담론은 구체적인 역사속에서 상호 교직되어 있다. 시장화 개혁이후 여성이 '성적 대상'으로 간주되는 현상은 단지 '전통문화의 잔재'가 아니다. 이는 장소성과 젠더, 계층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하며 그럴 때 시장주의 개혁 이후 배금주의와 남성중심주의가 성을 매개로 결합하여 여성을 대상화하는 맥락을 읽어낼 수 있다.

### 3. 미투는 중국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가?

#### 3.1. '연애'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베이징 노동자의 집' 성 침해사건

중국에는 '남쪽에는 NGO가 있고 북쪽에는 '베이징 노동자의 집'(北京工友之家)이 있다' 라는 말이 있다. 베이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베이징 노동자의 집(이하 '노동자의 집')은 명실상부한 중국 시민운동의 한 축으로 2003년에 가수 쑨형(孫恒)에 의해 설립되어 전국 노동자문화운동의 구심점이자 6개월 과정의 '노동자 대학(工人大學)'운영을 통해 노동자 지식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51) 당시 도시의 여성 엘리트들도 남성지식인들과 다르지 않아, 자신들이 1960년대 이후 농촌으로 '하방'되어 육체노동에 종사했던 경험을 마오쩌둥 시기의 억압적 권제주의의 희생물이라고 표현하였다. 즉 도시로 돌아온 지식인집단은 남녀를 불문하고 '농촌'과 '여성'을 결합시켜 마오시기의 '희생물'로 보는 관점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노동자의 집은 베이징 근교에 중소형 공장이 밀집한 피촌(皮村)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영화관과 공연장, 노동자박물관 등의 시설을 자원봉사자(志願者)들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학원생과 대학생, 혹은 지방출신의 청년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상교육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가 배정되어 있다. 정치, 사회, 철학, 심리학에 정통한 젊은 중간관리자들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받는 사상적 지주이며 이상주의적인 청년들의 꿈이 투사되어 있어 ‘우상’과도 같다. 중간관리자와 자원봉사자들은 공연장 맞은 편에 마련된 허름하고 간소한 단층 건물에서 공동식사, 공동 거주형식의 집단생활을 한다.

2019년 1월 17일 밤, 노동자의 집 관리자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성적 침해와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는 글이 웨이보에 공개되었다. 이 「노동자의 집에서 발생한 성적 괴롭힘과 성적 침해사건 피해자들의 집단성명(工友之家性騷擾及性侵害事件受害者集体聲明)」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단체의 명성이 실추될 것을 두려워하여 가해자의 실명공개를 거부하던 노동자의 집측의 입장을 철회하게 만든 ‘전쟁의 서막’과도 같은 문건이었다. 피해자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이 사건은 중국내 미투운동이 낳은 희망의 전조라 할 만한 사건이다.

피해 당시 18세로 대학 2학년생이던 에밀리(艾米麗, 가명)는 사건 발생 후 지속적인 사과를 요구하던 중 인권운동가 레이쑹의 성폭력 폭로사건을 보고 2018년 7월에 공개적인 미투에 동참하였다. 미투 동참 후 피해자집단이 노동자의 집으로 하여금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만들기까지 175일 간의 긴 싸움이 전개되었는데 노동자의 집이 2019년 1월 19일에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직전 며칠 사이에 벌어진 쌍방간의 힘겨루기는 긴박한 사투와도 같았다. 당시 진행일지를 보자.

1. 2019. 1. 16: 노동자의 집 측이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하여 1월 16일에 「의식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을 만들고 권력을 감독관리하고 성적 괴롭힘에 반대한다(提升意識, 建立機制, 監管權力, 反對性騷擾)」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림.

2. 2019. 1. 16: 피해자집단은 위 사과문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베이징 노동자의 집에서 발생한 성적 괴롭힘과 성적 침해사건에 관심을 지닌 각계 인사에게(關注北京工友之家性騷擾及性侵害事件的各界人士)」를 통해 가해자의 실명 공개와 피해자가 겪은 구체적인 상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 만약 노동자의 집이 1월 17일 정오까지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직접 이 두 가지를 공표하겠다고 압박함.

3. 2019. 1. 17: 노동자의 집이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표명하자<sup>52)</sup> 피해자집단은 분노하여 「노동자의 집에 대한 대답과 차즈웨이 여성 자원봉사자에 대한 성적 침해와 성적 괴롭힘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回應工友之家及詳述賈志偉性侵騷擾女志願者事件)」을 공표. 가해자의 실명공개와 함께 가해자가 학생들의 존경심을 빌미로 밤마다 여자원봉사자의 침실에 들어와 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행위와 그로 인한 봉사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공개함.

4. 2019년 1월 19일 : 노동자의 집이 사과와 함께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함.

노동자의 집이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1월 19일의 최종적인 문건은 베이징노동자의 집 웨이보에 게시되었다. 그러나 이 웨이보 자체가 방문객이 적어 포스팅된 문장은 트래픽 수가 1만 5천 남짓으로 낮았으며(내

52) 「關於工友之家反性騷擾聲明的“兩點”回廈」 문건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 「北京工友之家賈志偉性侵多名女生事件：仍有六問未解」, <https://user.guancha.cn/main/content?id=73840&s=fwzxfbt>

부자 L여사와의 인터뷰, 2019년 1월 22일 시점) 이 사건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부웨이교수가 1월 19일 당일에 자신의 웨이보에 글을 올림으로 해서였다. 필자도 그것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였다.<sup>53)</sup>

그러면 ‘미투’라는 ‘운동’을 접하기 전 피해자들은 피해사실과 말 못할 고통을 어떤 언어로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생존해 왔을까? 피해자집단을 대표하는 에미리는 18세에 자원봉사를 지원하였고 노동자의 집이 자랑하는 ‘3대 핵심인물’중 한 사람인 관리자 ‘자즈웨이(賈志偉)’로부터 ‘순결에 집착하는 것은 구시대적 정조관이므로 버려야 한다’는 강의를 들었다. 그 후 존경심과 달리 역겨움을 느끼게 하는 선생님의 성적 접촉과 성추행을 겪으며 자신이 그의 ‘첩(小三)’인가 라는 혼란을 겪다가 결국에는 가해자의 표현대로 ‘정신적인 지도자, 우상이 너와 연애를 한다’(精神導師和偶像對你“談戀愛”式的性侵害)”라는 자기최면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신 외에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에게 그가 동일한 수법으로 성적 침해를 가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은 단결하여 가해자를 두둔하려는 노동자의 집에 항의하기 시작하였다.<sup>54)</sup> 레이황 사건을 계기로 중국사회가 성적 침해를 공론화하기 이전 단계에 이 피해자집단의 사과요구는 중국내에서 비공개적인 방식을 통해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성적 괴롭힘에 대해 주체적으로 압박을 가한 최초의 사례였다.<sup>55)</sup> 그러면 피해자들의 단결과 끈질긴 노력이 피해자의 요구를 관철시킨 동력이었는가? 그렇지만은 않았다.

### 3.2. 압박의 성공-국제기금 옥스팜과 내부의 지지

2019년 1월 16일에 발표된 피해자집단의 선언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53) 당시 중국 광둥성에 출장중이던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조문영교수님의 연락으로 이 상황을 알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54) 「回應工友之家及詳述賈志偉性騷擾女志願者事件」,

<http://3g.163.com/dy/article/E50Q8V0805288916.html>

55) 위의 글.



2018년 7월 26일 미투운동의 영향을 받고 고무되어 우리는 사건이 발생한지 수 년이 지났지만 다시 한 번 베이징 노동자의 집에 이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투서를 한 뒤 소통을 하고자 하였다. 이 기나긴 175일 동안 우리는 힘든 소통의 과정을 거쳤는데 노동자의 집 고문선생님과 이사들이 (노동자의 집에) 압력을 가하고 관련 기금회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 줌으로써 비로소 노동자의 집으로 하여금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아 성명서 발표를 거부하던 태도를 바꾸어 마지못해 오늘의 이 성명을 발표하도록 만들었다.<sup>56)</sup>

공익단체는 대체로 기금회, 자원봉사자, 단체 세 요소가 결합되어 운영된다. 국제적인 공익활동을 후원하는 영국의 옥스팜(Oxfam, 옥스퍼드 기근구조회(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들이 베이징 노동자의 집을 후원해 왔음을 밝힌 뒤, 노동자의 집에서 발생한 성 침해사건을 옥스팜이 겪었던 2010년 아이티 지진 당시 남성 자원봉사자들이 현지에서 집단매춘을 한 충격적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대응하였다. 옥스팜은 아이티에서 성 매수를 한 자들에 대한 처벌과 아이티 정부에 대한 사죄방안을 담은 대책보고서를 2018년 2월에 제출하였으며<sup>57)</sup> 그 안에는 전담위원회 설치, 피해자의 투서를 보장하고 여성들이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향후 막대한 금액을 투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옥스팜은 피해자들 편에 서서 노동자의 집에 사죄와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sup>58)</sup>

56) “2018年7月26日，在米兔運動的影響和鼓舞下，事隔多年之後，我們再一次向北京工友之家作出了對該事件的正式投訴及溝通。在這漫長的175天中，我們通過艱難的溝通，通過工友之家顧問老師和理事施加壓力，通過相關基金會的大力支持，才迫使工友之家逐步認識到該事件的嚴重性，從拒絕發布聲明轉變為不得不發布今天的這個聲明。”，“「工友之家」性騷擾及性侵害事件受害者集體聲明」，2019.1.16.

<http://3g.163.com/dy/article/E5LA5QLE05288916.html>

57) 「英國樂施會公布海地事件內部調查報告」，

<http://www.oxfam.org.cn/info.php?cid=23&id=1882&p=work>

58) 「樂施會對北京工友之家發生性不當行為事件的回應與立場」，

<http://www.oxfam.org.cn/info.php?cid=23&id=1919&p=work>

한편, 노동자의 집에는 외부에서 모셔온 ‘고문(顧問)’이라는 직책이 있고 부웨이가 고문이다. 노동자대학이 있는 베이징시 핑구현(平谷縣)에는 설립자 쑨형과 고문 부웨이가 한 건물의 옆 방에 나란히 살고 있다.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고문’임명장을 보여주며 자신은 노동자의 집의 고문으로 초빙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하던 부웨이는 피해자들을 지지해 준 든든한 버팀목이자 웨이보를 통해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린 인물이다. 노동자의 집의 정신적 지지자인 그녀는 ‘집안배경이 지극히 별 볼일 없고 연애경험이 없는 여자아이’를 골라 작업을 걸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도 대부분 발설하지 않고 삭이며 그냥 넘어간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기에 자즈웨이의 사악함이 약자에 대한 차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였던 그녀는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웨이보에 사건을 공개함으로써 자기 몸의 중기를 과감하게 도려내었다.

이와 같이 노동자의 집 성 침해 사건은 피해당사자들의 노력과 함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지해 준 내부인사와 국제 인권단체의 자기성찰적인 후원과 압박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된다.

### 3.3. 중국 여성주의 지식생산과 미투

중국은 1949년 이래 1980년대 시장주의 개혁을 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국가로부터 남성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받는 여성해방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시장화 이후 집체생산제가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생존해야 하였기에 맑스주의 여성해방이론은 여성의 삶의 변화에 대한 해석력이 부족하였다. 부런주관 하에 중국 여성주의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학술지 『부녀연구논총』을 1992년 창간호부터 2012년까지 분석한 장슈화(姜秀花)는 이 20년 간의 연구물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여성이론(中國特色社會主義婦女理論)에 대한 탐색이며

두 번 째가 여성발전의 핵심적 이슈를 권리평등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라고 정리하였다.<sup>59)</sup> 그러나 활발한 탐색에도 불구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여성이론은 아직 완성되지 못하여 후속연구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sup>60)</sup>.

중국의 여성주의 지식생산에 있어서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는 전환기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를 계기로 서구 여성주의 이론이 중국내에 '공인'된 분위기 하에서 인적 교류와 함께 급속하게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외부세계와의 접속은 중국 여성주의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해방경험을 여성주의 언어로 '설명'할 필요를 느끼게 하였다. 이론 탐색이 그 일환이었으며 중국의 여성주의자들은 1995년 이후 한편으로는 외부이론의 토착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경험을 소통가능한 언어로 '설명'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당시의 여성주의 지식에 대한 갈증은 1997년에 씌어진 왕정(王政)의 논문 「여성의식과 '사회성별'의 구분」에 잘 드러나 있다.<sup>61)</sup> 그는 낯선 'gender'라는 영어를 중국어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논한 이 글에서 1980년대 마오쩌둥 비판과 함께 부상했던 '생물학적 여성성/여성스러움(여성미)'과 서구에서 온 젠더개념의 차이를 설명하고 '사회성별(社會性別)'이라는 신조어를 젠더의 번역어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개혁개방이후 중국 사회에는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주류로서 맑스주의 전통이 존재하고 이와 함께 포스트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성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강조하는 새로운 흐름이 생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두 흐름의 차이는 중국 사회에 미투운동이 발생하였을 때 뚜렷한

59) 姜秀花, 「從『婦女研究論叢』看中國婦女/性別研究進展——創刊 20年來欄目、主題與內容的變化分析」, 『婦女研究論叢』, 2012年 第2期, p.14.  
 60) 이론탐색 논문은 王卫国, 「立足新的形势推动妇女理论创新和妇女事业发展」, 『婦女研究論叢』 2010年 第4期和 甄硯, 「推動理念創新提升在中國婦女運動和國際婦女運動中的影響力」, 『婦女研究論叢』, 2010年 第4期 참조.  
 61) 王政, 「女性意識」 "社會性別意識"辨異」, 『婦女研究論叢』, 1997年 第1期, pp.14-17.

입장차이로 대립하였다.

2017년의 미투운동이 서양에서 중국으로 수입된 운동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자생적인 미투는 2014년에 폭로된 덩양사건이다. 사면대학 박사 과정생인 덩양이 지도교수를 성적 침해로 인터넷에 폭로한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파장이 컸다. 첫째, 의사결정권을 지닌 ‘성년’이 피해자였으며 둘째로 권력이나 시장논리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간주되어 오던 ‘교육계’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고학력자가 피해자였다는 덩양의 폭로는 중국사회에서 ‘성적 침해’를 초·중·고생, 혹은 장애와 약자에 대한 권리침해로 다루어오던 기존의 접근법에 균열을 일으켰다. 덩양이 거부능력이 있는 성인 피해자였기 때문에 ‘거래’혐의가 있는 댓가성이 아니었는가라는 의혹을 받으며 만약 댓가성이 아니라면 왜 거부하지 못하였는가를 입증하여야만 ‘성적 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내의 미투고발은 ‘성적 침해’사건의 초점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맞추어 논의되었으며 이에 ‘여성의 피해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은 여성주의적 법학계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였다.

법학박사논문인 『직장의 성적 괴롭힘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연구(職場性騷擾雇主責任研究)』<sup>62)</sup>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증거능력면에서 늘 의심의 대상이 되어 온 ‘이성과 공정성을 갖춘 “합리적인 여성”’이라는 기존 준거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저자 리옌(李妍)은 ‘합리적인 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하며 성차별 금지를 명시한 유럽의 법과 미국의 ‘인권법’(Civil Right Act, 1964년)등을 인용하며<sup>63)</sup> 여성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강조하는 한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방법을 모색하였다.

덩양사건이 발생한 2014년 여성계에서는 스승의 날(9월 7일)을 전후하여 두 종류의 상이한 공개적 문건이 발표되었다. 하나는 부련이 중심이

62) 李妍, 『職場性騷擾雇主責任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年 6月.

63) 李妍, 위의 글, p.34.

되어 교육부와 사건발생 대학의 총장에게 성적 침해 근절을 촉구한 공개 서한이었고 다른 하나는 소셜네트워크인 '여성권리의 목소리(女權之聲)'가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요구하며 발송한 「초중등학교 교사들에게 학교 성적 침해 방지 규범제정을 호소함(中小學教師聯署呼吁建立校園防性侵規範)」<sup>64)</sup>이었다. 송사오핑(宋少鵬)은 두 성명서를 분석한 글에서 양자를 '여권파(女權派)'와 '성학파(性學派)'로 구별하여 명명하고 양자는 성적 침해를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해결방식과 '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분석한다.<sup>65)</sup> 여권파로 명명된 부련주도하에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의 공개서한은 교육부와 대학총장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상정하고 피해내용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평등권 침해'로 간주하여 당국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달리 성학파는 젠더를 연구하는 개인연구자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들은 부련의 공개서한이 '성' 자체를 억압하고 근절해야 하는 '더러운 것으로 낙인찍는 다'고 비판하며 성은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이 '향유하고 선택하는 자유'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성을 억압할 경우 강의실이나 일상 생활에서 성을 교육할 기회 자체가 차단되어 여성에 대한 보수적인 성관념이 고착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학교에서 성교육 행정시스템을 갖추어 대중들의 성인식이 바뀔 때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성 소수자들의 성평등권, 즉 성선택의 '자유'를 강조한다.<sup>66)</sup> 결론적으로 송사오핑은 성적 침해에 대한 여권파의 대응이 현실적인 권력 불균형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평하고 성학파에 대해서는

64) 대표적인 자유주의 여성학자인 리인허(李銀河) 등 200명의 학자들이 연대서명하여 발표한 글이다. 리인허(1952-)는 피츠버그대학 박사, 1999년판 『亞洲周刊』이 뽑은 중국의 영향력있는 5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중국사회과학원연구원이며 동성혼인 입법화를 제안하였고 저서로 『性別問題』 등이 있다.

65) 宋少鵬, 「何爲性騷擾? : 觀念分歧与范式之爭 ---2014 年教師節前后"性學派"對"女權派"的質疑」, 『婦女研究論叢』, 2014年 第11期, p.56.

66) 동성애나 트랜스 젠더 등 성선택권을 인정하는 입장에는 부련과 '여성권리의 목소리'가 같은 입장을 취한다. 양자가 모두 '젠더 폭력'을 문제시하는 것이 그런 관점의 반영이다.

이성애적 인식들을 비판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가해자가 오용할 수 있는) 성적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현실의 ‘권력관계’를 간과한 점이 한계라고 논하였다.<sup>67)</sup>

미투고발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정부에 의해 2014년과 2018년 모두 ‘여권파’가 요구하는 방식인 ‘당 기율위원회’에 의한 하향식 처벌로 마무리되었다. 부련의 공개서신이 발표된 2014년에 교육부는 사회여론을 수용하여 ‘학교 내의 성적 침해’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선언과 함께 교사 인사평가 기준에 ‘사덕(師德)’을 명기하였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해결방식은 해직된 선양의 경우처럼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도록 하는데 이런 결과는 성적 침해를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범법’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배상도 할 필요가 없는 행정처리, 즉 ‘당의 기율(紀律)심사’제도에서 비롯된 결과라 하겠다.

#### 4. 다시 ‘중국적 현실’로 돌아와서

미투운동은 ‘배운’여자들만이 아닌 모든 성별의 존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되는 ‘약자에 대한 폭력반대’운동이 되어야 한다. 2018-9년 중국미디어에 보도된 주요한 미투사건이 교육계와 공익계 명사들 위주였지만 시간대를 넓혀 보면 방송<sup>68)</sup>, 종교계, 기업에서도 상사로부터 성적 괴롭힘과 성폭력을 당하여 기소하거나 사실을 공개한 경우가 많았으나 대부분 증거부족으로 기각되어 묻혔다.<sup>69)</sup>

67) 宋少鵬, 위의 글, pp.57-59.

68) 유명방송인 주권(朱軍)에 대한 고발사건은 「朱軍性騷擾案新進展：朱軍方要求終止審理被駁回」, 2019.1.18.

<http://ent.163.com/19/0118/19/E5R0ALO300038FO9.html#p=E50DRNVS00AJ0003NOS>

69) 2010년 3월 26일, 광둥성의 모 중간기업에 취업한 오양은 인터넷에 지난 3년간의 사장의 성폭행을 고발하고 사진자료까지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경찰은 ‘왜 당시에

1995년에 '성적 괴롭힘(性騷擾)'라는 단어가 중국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sup>70)</sup> 직장에서의 성적 침해와 성적 괴롭힘이 소송으로 다루어진 최초의 사건은 2001년 7월, 시안(西安)소재 국영기업의 여직원이 7년 간 상사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고소를 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3개월에 걸친 비공개심의를 통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기각시켰는데<sup>71)</sup> 그 후 2005년 수정판 「여성권익보장법(婦女權益保障法)」<sup>72)</sup>에 처음으로 '성적 괴롭힘 금지' 조항이 삽입되었다. 그러나 「여성권익보장법」 제40조에 삽입된 '여성에 대한 성적 괴롭힘을 금지한다'<sup>73)</sup>는 문구의 치명적인 한계는 '무엇이 성적 괴롭힘인가'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데 있었다. 법조항이 추상적인 개념정의에 그친 탓에 그 후 성적 괴롭힘에 대한 고소사건은 무엇이 '성적 괴롭힘'인가에 대한 해석 단계에서부터 의견이 갈려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sup>74)</sup>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일부 교육계와 공익계에서 강력한 처벌이 이

---

고발하지 않았으며 “어떻게 죽도록 저항하는 순간에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가”라며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시켰다. 전국적으로 반향이 컸던 사건보도 이후 한 매체는 ‘여직원이 사장의 접근을 막는 8가지 방법’을 실었는데, 당시 중국사회의 성인 지 감수성을 엿볼 수 있다. 즉, 사장이 성적 괴롭힘을 가하려고 하면 “나는 당신에게 일한 댓가로 돈을 버는 것이지 몸 팔아서 돈버는 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따지라, 그래도 안 되면 성병에 걸렸다고 하라, 저항하기 어려우면 수면제를 준비해두었다가 상사의 음료에 타라(…)” 등이 있었다. 반면 상사의 권력남용에 대한 경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 70) 중국사회과학원연구원 사회학소(中國社會科學研究院 社會學所) 부연구원 탕찬(唐燦)이 최초로 ‘성 소요’라는 단어를 썼으며 “性騷擾是一種基於性別的歧視，是以一種不受歡迎的行為或帶有性成分的言行”이라고 정의하였다.
- 71) 眞殿仁美, 「中國のセクシュアル・ハラスメント問題への対応と「#Me Too」運動の影響」, 『城西現代政策研究』, 第12卷 제1号, 坂戸: 城西大學, p.39.
- 72) 헌법의 하위법으로 전국에 적용되는 기초법이다. 1992년에 제정되었으며 2005년에 수정, 2018년에 재수정되었다.
- 73) 第四十條 禁止對婦女實施性騷擾。受害婦女有權向單位和有關機關投訴。(여성에 대한 성적 괴롭힘을 금지한다. 피해를 입은 여성은 직장과 유관기관에 기소할 권리가 있다)
- 74)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그 후 성적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주로 ‘명예 훼손죄(侵犯名譽權)’로 기소를 한다.

루어진 것은 정희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좋게 말해’ 미투는 시멘트를 뚫고 나온 씨앗이지만 실상 그 씨앗은 특정한 곳에서만 나올 수 있”<sup>75)</sup>다는 것을 재확인해 준다. 맥키넨은 ‘성적 괴롭힘’을 ‘덧가성 성적 괴롭힘’과 ‘적대적 환경형 성적 괴롭힘(敵對環境型)’ 두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sup>76)</sup> 이에 준해 볼 때, 중국의 교육계와 공익계에서 이루어진 처벌은 ‘덧가성’이 아닌 ‘적대적 환경형’으로 간주되어 미투로 인정받은 경우라 하겠으며 일반기업에서 상하 위계 관계하에서 고발된 많은 사건들이 ‘덧가성’으로 간주되어 ‘성적 괴롭힘’의 범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인식들이 통용되게 된 배경에는 중국 특유의 ‘샤오싼(小三, ‘제3자’의 약칭으로 유부남의 혼외 애인을 지칭)’현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샤오싼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덧가성 성거래라는 인식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비도덕적인 혼외관계를 지칭하는 샤오싼은<sup>77)</sup> 오늘날 중국의 인터넷공간에서 테크닉을 공유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등 ‘准직업’ 정도로 용인되고 있다. 언어사회학자들은 샤오싼을 빈부격차와 배금주의적 분위기의 결합으로 설명하는데, 배금주의는 가난을 무능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가난한 여성들은 평생을 노동에 시달리느니 청춘과 미모를 통해 성공한 남성을 타겟으로 삼는 것이 샤오싼이 발생하는 배경이라고 본다. 앞서 언급한 공익단체의 피해 자원봉사자가 ‘내가 샤오싼이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데서도 감지할 수 있듯이 중국사회에 ‘성거래’는 일상과 의식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샤

75) 정희진 엮음, 『미투의 정치학』, 교양인, 2019, 101쪽.

76) “‘交換型性騷擾’(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 和 ‘敵意環境型性騷擾’(hostile environment sexual harassment)”, 宋少鵬, 앞의 글, p.57.

77) 2009년에 방영된 중국의 TV드라마 「달팽이집(蝸居)」은 샤오싼 현상의 반영이자 사회적으로 샤오싼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킨 작품이다. 지방출신의 대졸여성이 대도시에서 살아가기 힘든 생활고와 소비욕구로 인해 상하이 시장의 비서인 유부남의 정부가 된다는 내용으로 당시 드라마에 대한 댓글에는 ‘힘들게 사느니보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주인공처럼 샤오싼이 되고 싶다’는 여대생들이 다수여서 논란이 일었다. 방영된 그 해 2009년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샤오싼’이었다.



오싼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우는 '부패'와 관련되어 있는 맥락에 한해서인 듯하다. 시진핑집권 이후 샤오싼은 관료 부패와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었는데, 당은 샤오싼을 부양하기 위하여 '국고를 빼돌려 탕진하는 관료'를 색출할 때 샤오싼을 언급하였고 이 때 '공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거래' 프레임이 지배적인 환경하에서는 여성이 설사 성적 침해와 폭력을 당한다 해도 인권침해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몹시 적다고 판단된다.<sup>78)</sup> 맥키년이 정의한 '성적 괴롭힘'의 범주에 포함된 '덧가성 성적 괴롭힘'은 오늘날 중국적 환경에서는 '이미 받을 것은 다 받은 거래'로 간주되어 '피해자' 범주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달리 교육계와 공익계는 금전적 거래와 구별되는 '신성한' 영역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덧가성이 아닌 적대적인 환경속에서 위계적인 관계에 의해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징계는 왜 21세기에 '스승으로서의 직업도덕'이란 '진부한' 표현을 빌어 이루어진 것일까?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계의 지속적인 요구 외에 2000년대를 전후하여 중국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을 통한 글로벌 리더양성'이라는 국가발전전략과 '사덕', '공익' 개념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교육계의 경우 미투폭로로 해직된 선양, 천샤오우 두 가해자는 모두 장강학자였다. 장강학자란 1998년 중국 교육부와 홍콩의 부호 리카슥(李嘉誠)기금회가 공동으로 계획하여 2004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국가적 인재양성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청년영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장강학자(長江學者)"와 "청년 장강학자(青年長江學者)"로 구분된다. 실행 첫 해인 2004년에는 100명의 장강학자를 선발하였으나 2012년부터 150명으로 선정 대상자를 늘렸고 선양과 같은

78) 오직 샤오싼이 사회적으로 논의될 때는 인권침해가 아닌, 부패한 관료가 샤오싼에게 과도한 돈을 써서 '국고를 탕진할 때'뿐인 듯하다. 시진핑이 부패와의 전쟁에서 샤오싼을 언급한 것이 그 예이다.

‘특별초빙교수’는 5년 동안 매년 20만 위안(한화 약 3억 2천만원)의 상금과 함께 각종 학회구성 권리를 부여받고 이와 유사한 ‘강좌교수’는 3년 동안 매월 3만 위안(1년 한화 5억 2천만원)을 상금으로 받는다. 이처럼 장강학자는 일반 교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물질적, 정신적, 넷트웍상의 혜택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직위이다.<sup>79)</sup> 이들이 징계를 당한 사유인 ‘사덕’이 교수평가의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2014년이다. 시진핑(習近平)은 2014년에 「건전한 대학교수로서의 직업도덕 수립을 위한 장기적 효과를 지닌 시스템구축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教育部關於建立健全高校師德建設長效機制的意見)」을 발표하여 교사의 인생관, 도덕관, 언어품행을 업적평가의 지표로 정하였는데<sup>80)</sup> 제정배경에는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지닌 개인주의적 사상에 대한 경계와 공동체에 대한 사명감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시장주의시대에 자라나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시하는 신세대들이 지식능력은 탁월하지만 종종 첨단 인공지능기술 등을 빼돌리거나 학생과 연령차가 많지 않아 품행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우려하며 교육부는 ‘인생관, 도덕관, 언어품행’ 항목을 교사평가항목에 추가하였다. 주로 해외유학을 다녀 온 이공계통의 젊은 교수들이 성적 침해 문제를 일으키는 현실과 이러한 교수평가기준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장강학자에 대한 징계는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투자에 상응하는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배덕행위에 대한 징계 성격이 짙다.

공익영역에 대해 보자면, 중국에서 공익과 자선활동은 명확한 구분이

79) 베이징시내의 40대 평균적인 인문학 교수의 월급은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

80) 「대학내 교사의 건전한 직업도덕을 수립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教育部關於建立健全高校師德建設長效機制的意見)」, <https://baike.baidu.com/item/%E6%95%99%E8%82%B2%E9%83%A8%E5%85%B3%E4%BA%8E%E5%BB%BA%E7%AB%8B%E5%81%A5%E5%85%A8%E9%AB%98%E6%A0%A1%E5%B8%88%E5%BE%B7%E5%BB%BA%E8%AE%BE%E9%95%BF%E6%95%88%E6%9C%BA%E5%88%B6%E7%9A%84%E6%84%8F%E8%A7%81/15877548>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공익은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업종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공익단체에 '낙후한 향촌으로 가서 발전을 도모하고 생태를 개선' 할 것을 기대하는데 이러한 정부와 자선사업, 공익단체 간 3자의 합작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志工, 혹은 義工)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한 해에만 자원봉사자가 1억 5천 8백 7만여 명에 달하였다.<sup>81)</sup>

중국 최초로 법제정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의미를 부여한 곳은 선전시(深圳市)이다. 2008년 선전시 인민대표대회는 「선전시 자원봉사조례(深圳市義工服務條例)」를 반포하여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노인과 약자를 돕고, 가난한 가정이나 지역을 구제하고, 빈곤 가정의 교육을 지원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및 기타 사회 공익 활동”으로 정하고 “자발성, 합법성, 진정성, 간소성, 비영리성”을 자원봉사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sup>82)</sup> 2017년을 기준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공익단체 숫자는 130여 만 개, 자원봉사자의 노동시간은 총 17억 9300만 시간이며 자원봉사자가 기여한 경제적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545억 위안(8조 7200억 원)<sup>83)</sup>로 그 증가세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sup>84)</sup>

81) 楊團, 「中國公益十年, 大格局變化背后存在哪些缺失?」,

[https://gongyi.ifeng.com/a/20180627/45039723\\_0.shtml](https://gongyi.ifeng.com/a/20180627/45039723_0.shtml)

82) 조문영, 「도시의 '사회적' 불평등 속 농촌 출신 청년 노동자의 삶」, 『도시로 읽는 현대중국 2:개혁기』, 김도경, 노수연 외, 역사비평사, 2017, 257쪽. 논문에 의하면, 법적 승인이 갖는 공신력 덕분에 1990~2005년까지 5만 8,000명 수준이던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2010년 조례 제정 이후 5년 만에 25만 6,000명으로 급증했다. 2008년 세계 대학스포츠대회(유니버시아드)가 선전에서 개최될 즈음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800여 개의 'U Station(U站)'은 대회가 끝난 후에도 자원봉사 상설 기구로 남아서 행인이나 관광객을 위한 정보 안내, 통역, 폐품 수집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83) 환율 160원으로 계산. 楊團, 「中國公益十年, 大格局變化背后存在哪些缺失?」,

[https://gongyi.ifeng.com/a/20180627/45039723\\_0.shtml](https://gongyi.ifeng.com/a/20180627/45039723_0.shtml)

84) 楊團, 위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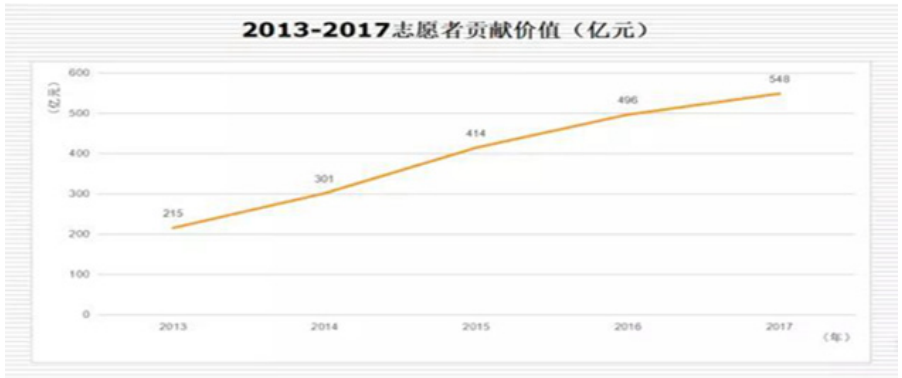


그림 3 2008-2018년 중국공익 10년 대표자회의와 2018년 『자선백서』 발표회(中國公益十年高峰會暨2018年《慈善藍皮書》發布會)에서 보고된 PPT

공익영역은 NGO발생 초기부터 국가의 발전과 유지에 필수적인 영역으로 편제되어 있었으며 국가의 ‘관리’가 미치는 영역이었다. 그러므로 공익단체의 지도자가 물의를 일으켰을 때 그들이 취해야 할 행보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그러면 편제하는 ‘성적 괴롭힘’과 ‘성적 침해’에 대하여 ‘선택적 징벌’을 가하는 행정형 처벌방식에 대하여 중국의 여성주의 학자들은 어떤 문제의식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사회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형의 평등한 ‘노동권’과 좌파전통이 부재한 상태에서 여성의 특수성(모성, 보호의 대상)을 강조하는 미국형 ‘정체성’의 정치 가운데 중국의 법제도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묻는 것에 다름 아니다.

2018년 3월 『부녀연구논총』에 실린 미투 특집호 논문은 중국내외의 성적 침해와 괴롭힘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사회의 현 단계를 진단하였다. 특집호에서 리칭(郦菁)은 「비교적 관점에서 본 성적 괴롭힘 반대 정책-담론구조, 정책과정과 중국정책제정(比較視野中的反性騷擾政策——話語建构、政策過程与中國政策制定)」에서 중국의 성정책을 여타 국가정책과 비교함으로써 중국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성정책

은 성적 자기결정권, 다양한 성적 취향, 정체성을 인정하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보다는 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평등권'을 중시하는 부런 중심의 학자들이 주로 이끌고 있으며 현재까지 성적 침해에 대한 당국의 처리방식은 사회주의 전통이 있는 유럽적 방식에 가까워 상부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부가 '기율심사'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성중립적'인 성향이 짙은 유럽의 대응방식은 '노동평등권'에 근거한 것으로 해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재발방지효과가 적다. 그러나 여성의제를 '고립'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장기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하다. 반면 여성을 특수한 성별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인식하고 1960년대부터 변호사집단을 중심으로 사법영역을 통해 가해자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함으로써 여성권익을 신장시켜 온 미국적 방식은 신속한 해결과 재발방지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으나 좌파 전통이 없는 상황에서 성 도덕을 강화시켜 보수화하고 여성의제를 '고립화'할 위험성이 있다.<sup>85)</sup>

그러면 최근 여성학자들은 여성의 성적 침해 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선양사례와 공익지도자들의 사퇴에서 알 수 있듯이 처벌받은 당사자는 가해행위에 대한 참회와 배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직위해제를 통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현실을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연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리옌(李妍)의 『직장의 성적 괴롭힘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연구(職場性騷擾雇主責任研究)』이다. 저자는 중국사회가 경쟁사회로 진입하여 성적 괴롭힘과 덧가성 성거래가 경쟁의 결과로 날로 증가하지만 중국내 연구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진단한 뒤 '피해여성의 증거능력 입증'과 '고용주의 책임추궁' 두 축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한다. 리옌은 재판을 통해 고용주에게 무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미국적 방식이라고 전제한 뒤 독일, 유럽연합, 일본 등지의 법을 비교고찰한 뒤 중국은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이 공존하는 '중국

85) 麗 菁, 「比較視野中的反性騷擾政策——話語建构、政策過程与中國政策制定」, 『婦女研究論叢』, 2018年 第3期, pp.34-38.

특색의 사회주의'국가이므로 고용주에 대한 책임을 묻되 국영기업을 제외한 민간기업의 고용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sup>86)</sup> 중국의 여성계는 1993년에 한국에서 발생한 최초의 미투인 서울대학교 우조교 사건을 보도하며 피해자가 국가, 대학, 가해교수 세 대상에게 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참조한 바 있다. 그러나 리옌은 귀책대상에서 국가를 제외하고 민간고용주에게 소송을 통한 벌금을 물리는 '토착화'된 절충안을 제시하였고 리옌과 달리 민사보다 더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sup>87)</sup> 이처럼 여성주의적 법학계의 성적 괴롭힘과 침해에 대한 대안 모색은 점차 노동'평등'권 중심으로부터 '정체성'의 정치를 차용하는 유럽형과 미국형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성적 괴롭힘과 성적 침해에 대한 해결방안은 재발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의 진정어린 사죄와 배상을 통한 치유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문화'의 형성을 위해 중국의 여성주의자들은 법안을 모색하고 제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성공한 미투운동'인 베이징 노동자의 집 사건이 보여주었듯이 현실은 가해자들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는 데 만도 10년이 소요되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남성중심적 카르텔의 견고함은 '최소' 이 정도인 것이다.

86) 李妍, 『職場性騷擾雇主責任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年 6月, pp.41-53. 여성증인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앞서 논함.

87) 隗佳, 「德國刑法對婦女的保護研究——以『德國刑法典』第238條糾纏騷擾罪為視角」, 『婦女研究論叢』, 2018年 第3期, p.53.

## 참고문헌

### 1. 단행본

정희진 엮음, 『미투의 정치학』, 교양인, 2019.

조문영, 「도시의 '사회적' 불평등 속 농촌 출신 청년 노동자의 삶」, 『도시로 읽는 현대중국 2: 개혁기』, 김도경, 노수연 외, 역사비평사, 2017.

Wang Zheng, *Finding Women in the State—a socialist feminist revolu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1964*, Oakland, California: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7.

### 2. 논문

조경희, 「일본의 미투, 고립과 교차성 사이」, 『페미니즘 지식문화의 동아시아적 유동과 변환』, 한국여성문학학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HK+)연구소 공동 학술회의 자료집(2019년 5월 11일)

卜衛·劉曉紅 等, 「校園性別暴力的媒介再現研究」, 『婦女研究論叢』, 2019年 1月, 第一期, pp.78-90.

隗 佳, 「德國刑法對婦女的保護研究——以『德國刑法典』第 238 條糾纏騷擾罪爲視角」 2018 年 『婦女研究論叢』, 2018년 3월 제3기, pp. 46-53.

姜秀花, 「從『婦女研究論叢』看中國婦女/性別研究進展——創刊 20年來欄目、主題與內容的變化分析」, 『婦女研究論叢』, 2012年3月 第2期. pp. 5-16.

郟 菁, 「比較視野中的反性騷擾政策——話語建構、政策過程與中國政策制定」, 『婦女研究論叢』 2018年 第3期 pp. 33-45.

李妍, 『職場性騷擾雇主責任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年 6月.

宋少鵬, 「何爲性騷擾? : 觀念分歧與范式之爭 ——2014 年教師節前後"性學

派“對”女權派”的質疑」, 『婦女研究論叢』, 2014年 第11期, pp. 56-65.

王政, 「女性意識” “社會性別意識”辨異」, 『婦女研究論叢』, 1997年 第1期, pp.14-20.

眞殿仁美, 「中國のセクシュアル・ハラスメント問題への対応と「#Me Too」運動の影響」, 『城西現代政策研究』, 第12卷 제1号, 坂戸: 城西大學, pp.33-46.

### 3. 인터넷 자료

- SBS취재파일, 「안희정 2심 판결문 입수..'학습된 무기력」, 2019.2.3.  
<https://news.v.daum.net/v/20190203162701929?fbclid=IwAR1vfUosFKIYoxZiLqxi6QOLh8zQ7IUSCcrkknzNQ-hx3VUo61vQCPaypxo>
- 「20만 명 동의 국민청원 40%가 '젠더 이슈」, 세계일보, 2019.7.18.  
<https://news.v.daum.net/v/20190718060157145>
- 「20년 전 지도교수 강제성추행 여대생 자살...미투 베이징대 강타」  
2018.04.07. <https://news.joins.com/article/22516024>
- 汀洋, 「「考古女學生防“獸”必讀」全文」, 2018.1.13.  
<http://www.mnw.cn/xiamen/news/773154.html>.
- 「如何看待針對對外經貿大學統計學院薛原教師實施猥褻及長期性騷擾的舉報」, <https://www.jianshu.com/p/771d2c6a3e41>
- “The #MeToo Moment: The Year in Gender”,  
<https://www.nytimes.com/2017/12/30/us/the-metoo-moment-the-year-in-gender.html>
- “The #MeToo Moment: For U.S. Gymnasts, Why Did Justice Take So Long?”  
<https://www.nytimes.com/2018/01/25/us/the-metoo-moment-for-us-gymnasts-olympics-nassar-justice.html>



- 王婷, 「關於公益圈性騷擾, 她們有話說!」, 陝西婦女研究會, 2018.7.30.  
<http://www.chinadevelopmentbrief.org.cn/news-21695.html>
- 「被爆“性騷擾”的這個男演員, 時隔一月之後發聲: 我真的很痛苦」, 2018.4.1. [http://www.sohu.com/a/226933577\\_164689](http://www.sohu.com/a/226933577_164689)
- 「我也是」, <http://news.163.com/17/1101/05/D24QNB4R00018AOP.html>
- 「24歲女星曝遭制作人性騷擾1年: 無人就摸我」, <http://ent.sina.com.cn/s/h/2016-11-03/doc-ifxxnety7159381.shtml>.
- 「台女星遭性騷擾主動出擊: 對方傳下體照」, 2014.10.29.  
<http://ent.sina.com.cn/s/h/2014-10-29/00224231712.shtml>.
- 「被爆“性騷擾”的這個男演員, 時隔一月之後發聲: 我真的很痛苦」, 2018.4.1. [http://www.sohu.com/a/226933577\\_164689](http://www.sohu.com/a/226933577_164689)
- 「“Me too”反性騷擾延至韓國 演藝圈大規模遭指控」, 2018.2.24.  
[http://ent.ifeng.com/a/20180224/43030609\\_0.shtml](http://ent.ifeng.com/a/20180224/43030609_0.shtml)
- 「性騷擾調查發起者黃雪琴: 如果我們繼續沉默, 就是幫凶」, 2018.1.16.  
[http://www.sohu.com/a/217012054\\_99937407](http://www.sohu.com/a/217012054_99937407)
- 「近年高校教師猥褻性侵女大學生案例大盤點」, 2018.4.9.  
[https://www.sohu.com/a/227732428\\_100130164](https://www.sohu.com/a/227732428_100130164)
- 李悠悠, 「北京大學李悠悠實名揭發長江學者沈陽教授」, 2018.4.5.  
<http://bbs1.netbig.com/thread-2863344-1-1.html>
- 「對話“沈陽事件”舉報人李悠悠: 望公開當年處分當事人的會議記錄」, <https://ent.sina.cn/2018-04-08/detail-ifyteqtq5556661.d.html?pos=12&vt=4>
- 「近年高校教師猥褻性侵女大學生案例大盤點」, 2018.4.9.  
<http://www.yfmp.net/funny/1967.html>
- 「厦大博導誘奸女生事件」, <https://baike.baidu.com/item/%E5%8E%A6%E5%A4%A7%E5%8D%9A%E5%AF%BC%E8%AF%B1%E5%A5%B8%E5%A5%B3%E7%94%9F%E4%BA%8B%E4%BB%B6/15099756?fr=aladdin>
- 「上海名師性侵多名男學生 曾是學生口中的“傳奇」, 2013.12.29.

- <https://www.nanrenwo.net/zlht/43352.html>
- 「評論：当女研究生遇上“以權謀色”的導師」，2014.8.1.  
<http://tieba.baidu.com/p/3200558222>
  - 「雷闖性侵事件当事女生：不是“戀人”，他拿出安全套時覺得完蛋了」，2018.7.25.  
<https://baijiahao.baidu.com/s?id=1606930429312152733&wfr=spider&for=pc>
  - 「知名公益人雷闖承認“性侵”指控并致歉，但背后的言論却不堪入目」，2018. 7. 25.  
<https://baijiahao.baidu.com/s?id=1606947116342037379&wfr=spider&for=pc>
  - 「雷闖」，<http://www.baik.com/wiki/%E9%9B%B7%E9%97%AF>
  - 「自然大學始創人被曝性侵女員工，馮永鋒：是我太邪惡」，2018.7.25.  
<https://baijiahao.baidu.com/s?id=1606926620897470376&wfr=spider&for=pc>
  - 王婷，「關於公益圈性騷擾，她們有話說！」，陝西婦女研究會，2018.7.30.  
<http://www.chinadevelopmentbrief.org.cn/news-21695.html>.
  - 「北京工友之家賈志偉性侵多名女生事件：仍有六問未解」，  
<https://user.guancha.cn/main/content?id=73840&s=fwzxfbbt>
  - 「回應工友之家及詳述賈志偉性侵性騷擾女志願者事件」，  
<http://3g.163.com/dy/article/E5OQ8V0805288916.html>
  - 「“工友之家”性騷擾及性侵害事件受害者集体聲明」，2019.1.16.  
<http://3g.163.com/dy/article/E5LA5QLE05288916.html>
  - 「英國樂施會公布海地事件內部調查報告」，  
<http://www.oxfam.org.cn/info.php?cid=23&id=1882&p=work>
  - 「樂施會對北京工友之家發生性不當行為事件的回應与立場」，  
<http://www.oxfam.org.cn/info.php?cid=23&id=1919&p=work>
  - 「朱軍性騷擾案新進展：朱軍方要求終止審理被駁回」，2019.1.18.  
<http://ent.163.com/19/0118/19/E5R0ALO300038FO9.html#p=E5ODRNV500AJ0003NOS>
  - 「教育部關於建立健全高校師德建設長效機制的意見」，

<https://baike.baidu.com/item/教育部關於建立健全高校師德建設長效机制的意見/15877548>

- 楊團, 「中國公益十年, 大格局變化背后存在哪些缺失?」, 2018.6.27.  
[https://gongyi.ifeng.com/a/20180627/45039723\\_0.shtml](https://gongyi.ifeng.com/a/20180627/45039723_0.shtml)
- “China’s #MeToo Activists Have Transformed a Generation – A small group of feminists has shifted attitudes—and prompted harsh pushback”, By Simina Mistreanu, January 10, 2019, <https://foreignpolicy.com/2019/01/10/chinas-metoo-activists-have-transformed-a-generation/>

## Abstract

Me Too in China: Global 'access' and indigenous 'acceptance'

Kim, Miran

In China, 'Me Too' has rocked Chinese society like an "earthquake" since early 2018. However, the Chinese government's rapid blocking of the 'Me Too' search keyword makes it impossible to detect developments after the outbreak, and this study indirectly reviewed the global anti-tourism and changes in Chinese society through four keywords: 'sexually infringing,' 'sexually harassing,'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NGO'. China's Me Too was anonymous and focused on the 'education community' and 'public interest' areas, and the resolution was given a strong disciplinary (discharge) form from above. Despite the strong punishment, however, the perpetrator does not acknowledge the criminal act and the victim cannot be healed of the wounds. Prior to the U.S.-originated struggle, social awareness began to change in 2014 when Xiamen University was accused of sexual infringement, and the female community also showed conflicting positions supporting "equality" and "gender freedom." The law studies showed a pattern of change in accepting punishment through U.S.-style litigation, pointing to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gender-neutral, administrative-processing-oriented type, but the Me Too movement should be understood, among other things, closely related to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mplemented after the 2000s. Among the numerous perpetrators, those who are subject to punishment

are "selective" in common, who have enjoyed huge funding benefits by the Chinese government. Thus, the punishment for unsuited haters was punished not for human rights violations but for a lack of a 'professional sense of work' as a teacher, and as a result, the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did not reach the point of spreading socially.

Key words : Me Too, China, sexual harassment, teacher's professionalism, NGO, human rights

■ 본 논문은 2019년 7월 10일에 접수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8월 1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